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시기별, 영역별 애착 평가를 위한 척도들의 개관

진 미 경¹⁾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 미 숙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논문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영아기로부터 성인기 까지 애착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개관하고, 각 척도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영아기부터 성인기 까지 시기별 개관과 더불어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각 영역별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척도 중심으로 개관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아동 관계를 측정하는 성인애착면접 (adult attachment interview), 부모 및 동료 관계의 애착을 측정하는 부모, 친구 대상 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낭만적 애착을 측정하는 Nancy와 Shaver의 도구, Bartholomew의 도구들이 개관되었다. 그 결과 영아기나 아동기 애착 도구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애착의 구성개념들이 서로 간에 명확하고 통일적이었다. 그러나 아동기 애착 측정 도구들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문화권에 적용되어 질 때 제기되어지는 타당도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성인애착 측정 도구들과 관련하여서는,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방법의 차이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적합한 도구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각 도구들이 갖는 문제점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애착평가, 부모자녀관계, 낭만적 관계,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E-Mail : childcoun@hanmail.net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애착 이론 연구는 John Bowlby (1969, 1973)가 처음 그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이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Bowlby의 애착이론이 등장한 이래 그의 이론은 애착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개념구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발달이론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를 애착과 관련한 개인의 내적 표상 즉 내적 실행모델에서의 개인차로 재개념화 한 것이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는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양육자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양육자와의 내적 실행모델은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Zeanah & Barton, 1989).

Bowlby가 애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Ainsworth는 애착 측정의 방법론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애착 연구의 활기를 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insworth (1978)에 의해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낯선상황실험’이 개발된 이후로 애착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후 애착이론가들은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연구를 뛰어넘어, 전생애적 관점에서 애착의 지속성에 관심을 갖고 아동기 혹은 성인기의 애착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

유아기와 아동기의 애착 측정도구들은 주로

실험을 통한 관찰을 통해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을 측정하고자 의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에는 낯선상황실험을 통해 유아가 엄마와 분리 후 재결합 시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애착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아동기에는 이러한 낯선상황실험을 적용하려는 노력과, 인형놀이(doll play)를 통해 상징적 표상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유아기의 애착과 관련한 많은 연구결과들에 비해, 아동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덜 보고되어져 왔다. 한편 성인기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애착의 개념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친구나 이성간의 애정관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었으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면접법과 자기보고식의 검사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애착연구들은 애착 도구가 측정하는 구성개념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식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애착척도들을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까지의 시기별 개관 뿐 아니라 영역별 개관도 함께 할 것이며, 각 척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이와 관련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애착 척도들 개관

유아기 애착 측정 도구들

유아기 애착 측정을 하는 도구로 타당도가 검증된 대표적인 도구는 낯선상황실험이다. 이 도구는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Ainsworth가 고안한 절차로, 낯선 상황실험은 세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진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8개 에피소드는 처음 연구자가 엄마와 유아에게 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낯선 이와 함께하는 두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유아 혼자 방에 남겨지는 한 개의 분리 에피소드,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진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유아의 애착과 관련된 7점 척도인 네 가지 행동(근접성 추구, 접촉 유지, 회피행동, 저항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안정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네 가지 애착행동에 근거해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애착유형으로 나뉘며, 네 가지 척도에서 보이는 특성들에 따라 세부적으로 8개의 애착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회피유형은 회피 정도에 따라 완전히 조직화된 회피 전략을 보이는 아동은 A1, 덜 조직화된 회피 유형을 보이는 아동은 A2로 나뉜다. 안정 애착유형은 전형적인 안정 애착 유형은 B3, 낮은 근접성 추구하고 접촉 유지를 보이는 B1과 B2, 경미한 정도의 저항 행동을 보이는 B4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저항의 수동성 여부에 따라 C1과 C2로 나뉜다.

비조직화(disorganized)된 애착유형은 Main과 Solomon에 의하여 최근에 새로이 분류되어진 애착유형으로, 9점 척도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 유형이다(Solomon & George, 1999). 구체적인 예로, 1)강한 애착행동과 함께 회피나 저항 행동과 같은 상반된 행동을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보인다거나 2)유아의 방향성이 없거나 잘못된 움직임 3)스트레오 타입 혹

은 이상한 자세나 행동 4)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5)부모를 향한 두려움 6)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이 비조직화의 관련된 지표들이다(Solomon & George, 1999). 이러한 행동들은 네 가지 애착행동들이 영아-엄마간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만 코딩되어지는 것과 달리 영아가 엄마와 함께 있는 모든 에피소드(1, 2, 3, 5, 8)에서 코딩되어진다. 9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비조직화 유형이 주유형(primary classification)이 되는지가 결정되어진다.

낯선상황실험은 영아기 애착 측정도구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짐에 따라 다른 문화권에서의 타당도에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어진 낯선 상황 실험 연구들은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여 왔다(Lamb, Thomson, Gardner, & Charnov, 1985; Takahashi, 1986;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Zevalkink, Riksen-Walraven, Van Lieshout, 1999). 안정애착 vs. 불안정 애착의 분포에 있어서는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보였지만, 불안정 애착 유형(회피유형 vs. 저항애착)의 분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Sagi & Lewkowicz, 1987;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구체적으로 독일의 Bielefeld 영아들은 불안정애착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회피애착 유형 분포(48%)를 보였고(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이스라엘(32%), 일본(32%), 인도네시아(34.1%) 같은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유형 분포를 보였다(Takahashi, 1986;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Zevalkink et al., 1999). 대다수의 연구들이 서양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비교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보고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문화권의 영아와 비교되어질 때, 동양 문화권에서 보고되어진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분포의 회피 애착 유형을, 높은 비율 분포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고해 왔다(Takahashi, 1986; Zevalkink et al., 1999).

이러한 분포들에 있어 차이는 각 문화권마다 다른 양육 가치나 태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왔다. Grossmann 등(1985)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 분포를 아동의 독립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분리를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엄마와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덜 한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유형 분포는 Kibbutz의 집단 잠자리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어 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이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민감한 양육이 행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 보여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저항애착 영아의 분포는, 유아시기에 부모와의 분리 상황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양육문화에 근거하여, 낯선 상황 실험 절차가 동양문화권의 영아에게 보다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아들이 저항애착으로 분류되게끔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agi & Lewkowicz, 1987).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도시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 연구(Van IJzendoorn & Sagi, 1999)는 80%의 영아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비취업모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 연구

역시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Sroufe, 1985). 한편, 동양문화권의 연구는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서양문화권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동양문화권의 아동들이 영유아기에 분리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절차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는 낯선상황실험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면, 저항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는 아동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낯선상황실험을 이용한 초기 일본연구로부터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Takahashi(1986)의 일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애착 유형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Takahashi(1986)는 그녀의 연구에서 분리 에피소드동안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음에도, 분리 에피소드 시간을 줄이지 않았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분리 에피소드를 실시하지 못했었다. 사실상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은 실험절차와 관련하여 아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분리 시간을 줄이는 것을 논의했고, 표준화된 실험절차에서는 실제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분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Carlson & Sroufe, 1993).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르면, 경미한 정도의 계속적인 울음의 경우는 1분이 지난 후 종료하고, 정도가 심한 울음의 경우는 30초 후에 종료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최근에 실행되어진 일본의 연구(Nakagawa, Lamb, & Miyaki, 1992)와 Jin(2005)의 한국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가 글로벌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이는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저항애착 유형의 높은 비율의 문제점을 지지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동향은 각 문화권에서 보여 지는 다른 분포들이 문화 간 차이라기보다는 연구대상들이 갖는 특성간 차이로 해석되어지고 있다(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아동기 애착 측정도구들

아동기 애착 측정도구들은 크게 낯선상황실험과 같이 분리-결합에피소드를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과 인형놀이(doll play)를 이용하여 아동의 표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류되어진다. 양육자 혹은 제 3의 관찰자가 아동의 안정애착에 관련된 행동들을 평가하여 분류하는 Q-set의 방법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동에 의해 직접 실행되는 도구로 제한한다.

분리-결합에피소드를 적용한 도구들

분리-결합에피소드를 아동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rvin(1977)과 Schneider-Rosen(1990)은 걸음마기 아동들에게 Ainsworth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평가범주들을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리 시간의 수정이라든지, 영아기에 안정애착을 평가하는 기준인 근접성추구와 접촉유지의 노력 대신 대화(talking)와 같은 거리를 둔 상호작용(distance interaction)을 안정애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노력의 일환으로, Main과 Cassidy(1988)는 6세 아동들에게 분리-결합의 에피소드를 적용하여 애착안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도구는 1시간의 분리시간 후 적어도 3분 이상의 재결합 에피소드 동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다. 이후 이러한 노력은

Cassidy, Marvin과 MacArthur Group에 의하여 2.5세부터 4.5세 아동들에게 적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들 도구들로 분류되어지는 애착 유형의 특징들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들은 상호간의 즐거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보이고, 환경을 탐색하는 기반으로 양육자를 사용한다. 회피 유형의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회피를 보이며 부모를 향한 차가움을 보이고, 부모의 주도를 최소화하며, 짧고 정교화 되지 못한 상호작용을 보인다. 저항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저항과, 갈등적 행동 패턴을 보이며, 혹은 수동적 행동의 지표로 지나치게 미성숙한 행동을 보인다. 비조직화 애착 유형의 아동은 부모 행동을 통제하려하고, 부모-아동 상호작용에서 역할 전이를 보인다. 또한 Main 과 Cassidy 분류체계는 낯선상황실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애착 유형내에서의 다른 특성들로 세부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A1으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들은, 완전히 조직화된 회피 유형으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부모를 무시한다(ignore). 부모와 관련해서 적어도 정서성이 결여된 듯 보인다. A2로 분류된 아동은 A1보다는 덜 조직화된 회피유형으로 부모가 돌아왔을 때 인식을 하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중성적인 정서성을 보인다. 안정애착의 세부유형과 관련하여서는, B1과 B2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는 아동은 경미한 정도의 회피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결합 에피소드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감에 초점을 두는 듯 하지만, 곧이어 초점의 대상이 부모에게로 옮겨간다. B4로 분류되어진 유형의 아이들은 의존적인 안정애착 유형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안정행동들을 보인다. B3로

분류되어진 아동은 재결합 시 정서적인 태도로 근접성과 접촉을 주도한다. 또한 저항애착의 세부유형과 관련하여서는 C1으로 분류되어진 아동은 부모를 향해 적대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반면 C2로 분류되어진 아동은 적대적인 행동과 함께, 수동적 행동의 지표로 미성숙한 행동을 보인다(Solomon & George, 1999).

이러한 측정방법은 낯선상황 실험의 연장선으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낯선상황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고, 세부유형의 애착유형의 개념도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은 학령전기 아이들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뿐 아니라, 애착의 안정성(s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대체로 62%에서 66%사이의 안정성을 보였고, 짧은 기간 후 혹은 긴 기간이 경과한 후인지에 따라 안정성이 다소 낮아지기도 높아지기도 하였다(Solomon & George, 1999). 그러나 낯선상황실험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어진 반면, 이러한 도구체계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 문화권간 차이에 대해서는 덜 연구되어 왔다. 이외에 이 도구체계들은 실행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분리 에피소드가 한 시간으로 길어지기는 하였지만, 애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이 가정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을 통한 측정방법

상징적 표상을 통한 측정방법은 그림이나 인형놀이 등을 통해 아동이 갖고 있는 애착인물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은 낯선상황실험과 같이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낯선상황실험은 분리시간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지만, 인형놀이에서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인형놀이의 대표적인 방법은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가 개발한 도구들과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Manchester attachment story)가 있다. 이들 도구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에피소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 양육자가 필요한 상황들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Bretherton(1990)의 도구가 유사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지만, 네가지의 애착유형으로만 나뉜다는 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를 위주로 개관하고자 한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는 낯선상황실험의 개념과 성인애착면접의 개념을 통합하여 고안된 도구이다. 실험자는 아이에게 다쳤을 때, 아플 때, 악몽을 꾸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연출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아이는 인형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며, 이야기의 내용과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9점 척도의 다양한 양육에 대한 척도들에 의해 코딩이 된다. 구체적으로,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등의 척도를 바탕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애착 면접의 개념인 일관성(coherence)의 개념

을 도입하여,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를 평가한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이러한 척도들을 바탕으로 애착의 유형 분류는 크게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비조직화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며, 다양한 하위 척도들에 따라 낯선상황실험에서와 같이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스트레스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정애착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엄마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 유형의 아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

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contradictory behavior)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화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1)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이거나, 2)여러 가지 전략들이 혼합된 경우, 3)동시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4)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5)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6)부모를 향한 두려움, 7)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이 비조직화와 관련된 지표들이다. 표 1은 낯선상황실험을 통해 분류되어지는 애착 유형들과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를 통해 분류되어지는 애착 유형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표이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이 도구는 낯선상황실험과 성인애착 면접의 핵심 개념들을 통합한 도구로, 애착 유형 뿐 아니라 다양한 양육 행동들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구로 평가된다. 실제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로 측정된 아동의 애착 유형과,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측정한 아동의 어머니들의 애착유형과 일치도는 61%에서 65%사이의 수치를 보였다(Green, Stanley, &

표 1. 유아기 애착과 아동기 애착의 세부유형 특징들

유아기 ABC 세부애착유형	아동기 ABC 세부애착유형
A1	2.1 (완전히 조직화되어진 회피 전략)
A2	2.2 (덜 조직화되어진 회피전략)
B1	1.1 (경미한 회피)
B2	1.2 (부모의 반응이 덜 최적화, 아이의 독립성)
B3	1.3
B4	1.4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지)
C1	3.1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증가, 갈등과 화)
C2	3.2 (수동성)

Goldwyn, 2003). 그러나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진 도구로, 보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애착 도구들

지금까지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방법론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면접방식인지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형태인지에 따라 분류되어져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각각의 도구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라기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차이나, 측정하고자 하는 관련변인에 따라 고안되어진 도구들이라는 점에 있어, 애착 측정 도구의 사용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법적 차이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개관하도록 하겠다.

부모-아동 관계에 대한 애착

부모-아동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이하 AAI)이다. 이 도구는 개인이 그들의 부모들과의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표상을 평가하는 준구조화된 인터뷰이다. AAI가 개발되어진 것이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었던 만큼, AAI에 기반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져 왔다. 이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들은 어린 시절 각각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 혹은 단어들을 제시하도록 요구되어지고,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이나 사건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후 부모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는지, 위협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기억이 있는지, 의미 있는 타인을 잃어본 경험들이 있는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요구되어진다 (Main, George, & Kaplan, 1985).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아동기 경험에 대한 평가와 현재 마음의 상태 (the state of mind)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동기 경험들은 사랑(love), 거부(rejecting), 무시(ignore), 성취에 대한 압력(pressured to achieve), 역할 역행(involve/ role-reversing) 척도에 의해 평가되어지며, 이러한 척도들은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 평가를 위한 참조 척도들로서 이용되어진다. 애착의 평가는 아동기의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인이 과거 경험들을 통합하고 조직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일관성 있게 기술 할 수 있는지, 그들의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성인의 애착 표상 분류는 어린 시절의 담화내용이 '일관성(coherence)'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이러한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언어철학자인 Grice(1975)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네 가지 요건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첫째,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의 질적인 측면이다. 둘째,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가를 보는 양적인 측면이다. 셋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련성의 측면이다. 넷째,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

기 하는지의 양식의 측면이다. 이러한 일관성의 점수들은 하위변인들(이상화(idealizing), 몰입된 화(involving anger), 애착관련의 평가절하(derogation), 기억의 부족(lack of memory), 수동성(passivity),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상실에 대한 미해결(unresolved of loss)에 의하여 측정되어진다. 이상화, 애착관련의 평가절하, 기억의 부족 척도와 관련하여 높은 점수(9점 척도 중 5점 이상)를 얻은 개인들은 거부형(dismissing)으로 분류되어지며, 몰입된 화와 수동성과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개인은 몰입형(preoccupied)으로 분류되어진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관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Main, Goldwyn, Hesse, 2002).

일관성 측면과 관련해 자율형으로 분류된 개인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을 융통성 있게 숨김없이 터놓고 전개한다. 아동기 애착 경험을 회상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며, 각 질문들에 대해 분명하고 관련된 반응들을 한다. 거부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은 부모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지만, 그들이 기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예들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고 대조된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은 애착과 관련되지 않는 경험들을 기억하는 데는 어려움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애착 경험을 기억할 수 없음을 보고한다. 이 부류의 성인들은 애착경험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몰입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들은 애착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격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변동적인 평가를 한다. 즉, 애착 인물들과 분노 몰입을 나타낸다. 이들은 많은 아동기 경험들을 회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

다. 분노에 몰입이 되어 있어 길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장들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미해결된/ 비조직화된 유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은 유의미한 상실 혹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경험과 관련하여, 그러한 경험들을 기술 할 때 논거 혹은 사고의 조직에 있어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 등을 나타낸다(Main et al., 2002).

많은 애착 연구들은 애착의 세대 간 전이 연구와 관련하여, 아동의 애착 유형과 그 아동들 어머니의 애착 유형들이 상당 부분 일치(Kappa=.46)한다는 보고를 해 왔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Van IJzendoorn, 1995). 즉, 거부형 엄마들의 많은 아이들이 회피 유형을, 안정형의 엄마들의 많은 아이들이 안정 애착 유형을, 몰입형 엄마들의 많은 아이들이 저항 애착 유형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이의 양육에 영향을 미쳐 아이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를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ABCD의 네 가지 애착 유형들 사이의 일치들을 보고하여 왔지만, 애착의 세부 유형 일치에 대한 보고도 있다. 애착의 세부 유형들이 보다 풍부한 애착 행동 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세부 유형간의 일치도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가질 것이다. 표 2는 낯선상황실험을 통해 분류되어지는 애착 유형들과 성인애착 면접을 통해 분류되어지는 애착 유형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표이다.

성인애착 면접은 성인들의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정신적 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의의도 갖지만, 임상장면에서도 유용한 도구로서도 이용되어진다. 임상연구자들은 외현적 장애(섭식장애 행동장애 등)는 거부형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경계선 장

표 2. 유아기 애착과 성인기 애착의 세부유형 및 특징들

유아기 ABC 세부애착유형	성인기 DEF 세부애착유형
A1	D1(이상화, 기억의 부족),D2(애착에 대한 평가절하)
A2	D3(이상화, 기억의 부족)
A1, A2	D4(상실에 대한 두려움)
B1	F1(애착관계의 측면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B2	F2(경미한 회피적 특성)
B3	F3, F5(부모의 계속되는 영향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분개)
B4	F4(애착 인물과의 몰입을 보이며 관계에 대한 가치화)
C1	E2(몰입된 화)
C2	E1(수동성)
C1,C2	E3(외상과 관련한 두려움 혹은 몰입)

애 같은 내현적 장애는 몰입형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Fonagy et al., 1991; Fonagy, Steele, & Steele, Leigh, Kennedy, Mattoon, & Target, 1995; Fonagy, Leigh, Steele, Steele, Kennedy, Mattoon, Target, & Gerber, 1996; Diamond, Clarkin, LeVine, Levy, Foelsch, & Yoemans, 1999). Fonagy et al. (1996) 은 경계선 장애 환자의 75%가 몰입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고,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매우 드물게 분류되는 E3 (fearfully preoccupied) 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임상장면에서 환자 치료 시 환자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I는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거나, 담화로부터 개인의 대처방식이나 방어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상적인 장면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AAI의 코딩체계를 적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는 점과, 문화

적인 측면과 맞물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진다.

첫째, 아동기 경험의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사랑 척도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물질적인 것을 매개로 한 사랑의 형태, 이른바 도구적 사랑(instrument loving)의 경우(예들 들어, 아동이 갖고 싶어 하던 물건들을 구입해 준다거나, 간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 양적인 측면에 상관없이 9점 척도에 3점 정도의 점수만을 받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체적 사랑이나 정서적 사랑의 형태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문화권마다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수 고려 할 때,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의 문화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이 이슈와 관련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점은 획득된 안정애착유형(earned secure attachment)이다. 획득된 애착유형이란, 아동기 부모와의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가졌음(사랑척도가 2.5 혹은 그 이하)에

도 불구하고,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획득된 애착유형과 관련한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 외에 어떠한 요인들이 개인의 안정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척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성적과 관련한 성취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관심은 성취에 대한 압력 척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권의 높은 교육열은 성취에 대한 압력의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측면들이 척도의 코딩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애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 중 수동성(passivity)과 비조직화(unresolved), 애착의 평가절하(derogation) 척도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수동성의 경우, 담화의 흐름이 초점 없이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와, 애매모호한 단어들의 사용 시 코딩되어진다. 애매모호한 단어 사용과 관련하여 예로서, 영어의 that kind of thing(staff), dadadadada (이들 경우,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코딩의 대상이 안 된다) 등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언어에서 어떠한 측면과 관련지을 수 있을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실과 관련하여, 비조직화 척도 코딩 시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거부(disbelief)는 비조직화 척도를 코딩하는 주요 지표이다. 흔히, 죽은 사람이 아직도 내 곁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하는 표현은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죽음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되어야 할지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 문화권에서 실시한 AAI연구(Behrens, 2005)에서, 연구자는 일본의 조상숭배의 문화

권을 언급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화권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지, 비조직화된 정신 상태로 보아야 할지 논의하였다. 결과, 보다 보수적인 코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애착관계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의 적용도 논의 되어야 할 대상이다. 서양 문화권에서 이 평가절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빈정대는 유머(gallows humor)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적용되어 질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애착 면접을 이용하여 연구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 자녀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왔다(장미자, 조복희, 1999,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일치도를 보기 위해 애착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만 보고되었을 뿐, 유형 분류를 위해 현재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척도들과 아동기 경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척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했던 문화적 측면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세부 척도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지는 바이다.

부모와 동료 애착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Armsden & Greenberg, 1987) 는 부모나 친구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perception)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대학생 나이의 대상을 상대로 개발되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저자는 청소년들의 내적

작동 모델이 애착대상에 대한 가용성과 반응성에 대한 신뢰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 애착 대상의 적절치 못한 반응에서 비롯되는 분노(anger) 혹은 절망(hopelessness)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측정되어 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뢰감(trust), 소외감(alienation)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감은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감은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애착 안정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애착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집단과 같이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Ainsworth의 애착유형(안정, 회피, 저항)과 같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다른 자기보고식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애착의 구체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청소년에 제한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낭만적 애착

낭만적 애착에 관련된 애착 연구는 파트너들과의 현재 관계들에 대한 개인들의 지각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들을 주로 이

용해 왔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Hazen과 Shaver(1987)는 성인 관계들에 적합하게 Ainsworth의 유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Ainsworth의 영아애착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성인의 낭만적 애착에 적합한 용어로 번역하였다. 안정적 낭만적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이 타인들과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믿고 타인에게 편안하게 의존하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양가적 낭만적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들이 그 개인이 바라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을 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회피적 낭만적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과 가까워지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이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애착유형들을 평가하기 위해, 이들은 각각의 애착유형들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들을 개인들이 읽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3은 각각의 애착 유형들에 대한 그들의 기술을 나타낸다. Hazen과 Shaver의 낭만적 애착 도구가 개발된 이후 많은 연구가들은 유형적 혹은 연속적 구성개념으로 낭만적 애착을 개념화하는 관련된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점들의 상호작용으로 애착을 이해한 Bartholomew는 the Relationship Questionnaire (RQ; Bartholomew & Horowitz, 1991)라는 낭만적 애착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1)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 2)버려짐에 대한 걱정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이들의 도구는 네 가지 애착유형(안정형, 몰두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Hazen과 Shaver의 도구와 다르지만, 이 도구 또한 개인들이 자신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네 개의 짧은 문단에 표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표 3. Hazen과 Shaver의 낭만적 애착유형 기술

안정적 낭만적 유형:	나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며 내가 타인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타인에게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이 나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회피적 낭만적 유형:	나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렵고, 내 자신이 그들에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타인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할 때 신경과민이 된다.
양가적 낭만적 유형:	나는 지나치게 많이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 타인들은 오히려 나를 꺼린다고 생각한다. 나는 종종 나의 파트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융합되기를 원하나 이러한 소망은 때때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떠나버리게 한다.

Bartholomew는 초기 애착 경험들이 아이가 자아와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형성하는데 내재화 된다는 Bowlby의 주장에 기반 하여, 네 가지 애착 유형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아에 대한 작동 모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분류되어져 네 가지의 관계로 분류되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유형의 사람은 자아를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타인들이 수용적이고 반응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아를 가치 있는 존재로 내재화하고 친밀감에 편안함을 느낀다. 몰입형은 다른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아에 대해 가치 없음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의 불확실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치 있는 타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두려워하는 회피(fearful)형은 자아에 대한 무가치함과 타인들이 무가치하고 거부할거라는 기대를 갖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해 타인과의 가까운 개입을 회피하게 된다. 거부형(dismissing)은 긍정적인 자아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결합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은 그들 자신들을 상처와 실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애착유형들을 평가하기 위해, 이들은 각각의 애착유형들을 설명하는 다음의 네 개의 문단들을 개인들이 읽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4는 각각의 애착 유형들에 대한 그들의 기술을 나타낸다.

이 도구에서 개인들은 그들을 가장 잘 기술하는 문단을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Hazen과 Shaver의 도구와 같지만, 각 기술들에 적합한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자아모델의 긍정성은 긍정적 자아모델(secure, dismissing)로 정의되어진 패턴들의 점수를 합치고, 부정적 자아모델(fearful and preoccupied)로 정의되어진 패턴들의 점수를 빼는 것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타인의 긍정성

표 4. Bartholomew의 낭만적 애착유형 기술

안정된: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나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이 나에게 의존할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혼자가 되거나 혹은 타인이 나에게 의존할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혼자가 되거나 혹은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몰두된:	나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주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타인들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불편하게 느끼고 때때로 내가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두려워하는 /회피적:	나는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해진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원하나 내가 타인을 완전히 믿거나 혹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타인과 가까워지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걱정한다.
거부적 /회피적:	나는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만 편안하다. 내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은 긍정적 타인 모델로 정의되어진 유형들을 평가하는 점수들을 합치고 부정적 타인모델 (fearful and dismissing)로 정의되어진 패턴들의 점수를 빼는 것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이 도구는 이전 도구들과 달리 연속점수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룹 내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러한 자기보고식의 범주적 모델은 그 신뢰성과 통계적 파워를 줄인다는 단점을 갖는다. 애착 유형을 나누기 위해 짧은 문단들이 주어지고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사실상, Hazen과 Shaver 도구의 test-retest 신뢰도는 단지 70%였고 Pearson r의 .40과 동일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도구들은 그 이론적 기반으로 Ainsworth의 애착 유형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한 유형 안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아기 애착 척도인 낯선상황 실험, 아동기 애착 척

도인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성인기 애착 척도인 성인애착면접 도구들은,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연속척도들로부터 많은 하위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성인에 대한 애착 유형을 단지 3가지 혹은 4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때, 같은 유형 안에 속하지만 다른 특성들을 가진 집단들에 대한 정보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Bartholomew & Horowitz, 1991; Bartholomew & Shaver, 1998)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와 함께, 인터뷰 방법을 병행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때, 개인차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전생애적 관점에서 각 시기별로, 영역별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개관하였

다. 우선 영아기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는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어 왔고, 이와 관련한 타당도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기 애착 측정도구들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발히 실행되지 못해왔었다는 점, 따라서 타당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졌다. 또한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각 도구들이 그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각각의 도구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안되어졌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즉, 도구가 개발되어진 대상이나 측정하고자 하는 애착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영역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각각의 도구들과 관련하여서는, 측정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장점들과 단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성인면접애착의 경우 아동기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인의 내적작동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도구의 이러한 측면들은 부모-자녀 관계 혹은 가족 내 역동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클 것이다. 또한 이 도구는 상담 장면에서 치료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Bowlby는 치료자의 역할을 내담자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치료자의 역할을 애착과 관련된 자아의 내적 모델의 탐색을 설립하고 내재화 되어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애착면접은 내담자의 내적 모델을 탐색하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험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구는 앞서 개관했듯이, 그 평가방법에 있어 매우 전문성이 요구어진다는 점, 코딩체계의 적용 시 문화적인 차이에 기반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Main과 그녀의 동료들이 이 도구를 개발했던 것과 같이,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각각의 애착유형에 속한 영아들의 엄마들이 면접 시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들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단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고, 평가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 개인이 왜 그러한 애착유형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병행하여, 짧은 인터뷰를 통해, 개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해훈, 이경숙, 김태런 (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31-142.
- 장미자, 조복희 (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선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4.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No.2, 226-244.
- Bartholomew, K., & Shaver, P. R. (1998). Methods of assessing adult attachment: Do they coverge?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25-45). New York: Guilford Press.
- Behrens, K. Y. (2005). *Mothers' attachment status as determined by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edicts their 6-year-olds' responses to separation and reunion: A study conducted in Japa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h,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lson, E. A., & Sroufe, L. A. (1993). Reliability in attachment classification. *Newsletter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pp. 4-12.
- Crowell, J., Fraley, R. C., & Shaver, P. R. (1999).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and Adult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713-734). NY: Guilford.
- Diamond, D., Clarkin, J., LeVine, H., Levy, K., Foelsch, P., & Yoemans, F. (1999). Borderline conditions and attachment: A preliminary report. *Psychoanalytic Inquiry*.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G., Mattoon, M., Target, M., & Gerber, A. (1996).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Development*, 64, 22-31.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on, M., & Target, M.

- (1995). Attachment, the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The predictive specific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pathological emotional development. In S. Goldberg, R. Muir, & J. Kerr(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33-278).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an (Eds.), *Syntax and Semantics III: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mann, K., Grossman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Haze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in, M. K.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infant attachment patterns in Korea and the U.S.: Associ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separation anxiet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 Kobak, P.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Lamb, M. E., Thomson, R. A., Gardner, W., & Charnov, E. L.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12.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 Goldwyn, R.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Goldwyn, G., & Hesse, E. (2002).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arvin, R. S. (1977). An ethological-cognitive model of the attenuation of mother-child attachment behavior. In T. Alloway, L.

- Krames, & P. Pilner(Eds.), *Advances in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affect: Vol.3. Attachment behavior*(pp. 25-60). New York: Plenum Press.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143-165). New York: Guilford.
- Nakagawa, M., Lamb, M., & Miyaki, K. (1992).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the strange situation behavior of Japanese Inf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300-31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Sagi, A., & Lewkowicz, K. S.(1987).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attachment research. In L. W. C. Tavecchio & M. H. Van IJzendoorn (Eds.), *Attachment in Social Networks*, 427-459.
- Sagi, A., Lamb, M. E., Lewkowicz, K. S., Shoham, R., Dvir, R., & Estes, D.(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and -metapelet attachments among kibbutz-reared Israeli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57-275.
- Schneider-Rosen, K. (1990). The Developmental reorganization of attachment relationships: Guidelines for classification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185-2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lomon, J., & George, C. (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713-734). NY: Guilford.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roufe, L. A., & Fleeson, J. (1986). The coherence of family relationships. In R. Hinde &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 families: Mutual influences*(pp. 27-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kahashi, K. (1986). Examining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with Jap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Van IJzendoorn, M. H., & Sagi, A. (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 Universal and Contextual Dimension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713-734). New York: Guilford.
 - Zeanah, C. H., & Barton, M. (1989). Introduction Internal Representations and Parent-Infa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135-141.
 - Zevalkink, J., Riksen-Walraven, J. M., & Van Lieshout, C. F. M. (1999). Attachment in the Indonesian Caregiving Context, *Social Development*, 8(1), 21-40.
- 1 차원고접수 : 2005. 9. 27.
수정원고접수 : 2005.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1.

Review of Attachment Measurements from Infancy to Adulthood

Mi Kyoung Jin

Dep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ee-Sook Yoo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attachment measurements from infancy to adulthood using a life-span point of view and discussed key problems of each measurement. In terms of the measured construct, attachment measurements for infancy and childhood were clear and coherent. In adult measures of attachment, rather than measure the same construct, methodologically diverse measurements have been us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 adult attachment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ir area of attachment: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for child-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for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both Nancy and Shaver's measurement and Bartholomew's measurement for romantic attachment relationships. Regarding attachment measurements for childhood, it is discussed that validity studies in various cultures are needed. Regarding adult attachment measures, it is discussed that measurements should be used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searcher's research purpose. Further, key problems of each measurement were discussed and research directions to solve these issues were suggested.

Key words : attachment measurem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romantic relationship, infancy, childhood, adulthood